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3+4

MAR + APR

2026 vol.40

특집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사람 사이 조성표(경북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동역회 이사), 조인영(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장요한(서울 광동교회 청년부 전도사,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청년 일터 이야기 재테크하는 이십 대 청년의 솔직한 고민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 속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ISSN 2671-8731

Contents

MARCH + APRIL · 2026

시선

공짜 점심은 없다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그리스도인의 재테크와 신앙적 성찰 | 신국원

04

특집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성서 신학자의 재테크에 관한 단상 | 권연경

06

그리스도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 권오병

08

도구인가, 이상인가 : 투자 앞에서의 신앙 | 권용우

10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회계에서 시작하자 | 박다윗

12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문성엽

14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 소유를 넘어 연결과 나눔으로 | 신동준

16

돈, 신앙, 그리고 지혜로운 투자 | 박정윤

18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 내 것을 넘어 주님의 것 관리로 | 이선복

20

그리스도인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 안경상

22

사람 사이

조성표(경북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조인영(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장요한(광동교회 청년부 전도사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24

섬김의 자리에서

문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 김철수

30



2026. 3+4월호 | 제40호(통권 255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주식투자 경험으로 배운 세 가지 교훈 임태빈	32
재테크하는 이십 대 청년의 솔직한 고민 김태준	34
청년 일터 이야기	
말길을 연습하다 김소람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영화 속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강진구	38
미술을 보다	
경제적 증식을 넘어 '창조적 경작'의 시대로 서성록	40
책을 보다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위한 지혜로운 안내서 이승우	42
<강영안의 공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양성만	44



교회 路

켈로나 한인장로교회 프로그램 소개	
캐나다 켈로나 한인장로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 리포트 김준호	46
소감문 :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니	
세속적 세계관은 헛된 가치가 되었다 김윤정	47

온전한 지성

로타 크라이식의 기독교 세계관(2) : '위대한 유산' 최용준	48
제10회 기독교청년학생연합 복문서트	
시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 석종준	50

소식

사무국/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공짜 점심은 없다

손봉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잘 돌보라는 구절은 무수하지만, 가난 그 자체를 장려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잠언에는 가난의 비참함과 가난으로 이끄는 잘못들을 지적한다.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 너무 가난하면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비겁해질 수도 있고, 사기꾼의 유혹에 약해질 수도 있다.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전통사회가 인정하는 것은 노동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창 3:19). 그동안 ‘노동을 통하지 않는 소득’(不勞所得)은 도둑질로 인식되어 왔다. 사도 바울도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살후 3:12)고 명령하고 게으름을 경고했으며(살전 5:11) 자신이 근로의 모범을 보였다. 중세 교회와 종교개혁은 ‘게으름’을 심각한 일곱 가지 죄 가운데 하나로 정죄했다. 노동을 통한 소득이 가장

정의롭고 안전하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는 언제나 타당하다.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한 육체노동은 그 수요가 줄어지고 있다.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하며 건강도 잘 유지해야 한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여유로 남을 돕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현대인의 노동은 대부분 피고용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지식, 기술, 경험뿐만 아니라 성실, 절제, 희생, 봉사 등 인격적인 소양도 필요하다. 구글(Google)이 가장 선호하는 직원은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화되면 그런 직원이 될 수 있다.

노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절약이다. 성경은 절약을 따로 강조하진 않지만,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보고 사치를 금하고 있다. 종교개혁 윤리에 관한 책에서 베버(Max Weber)는 개혁교인들은 ‘세계내적 금욕’을

실천했다고 썼다. 수도승들처럼 세상 밖 수도원에 가서 금욕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한 가운데서’ 절제와 절약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흔히들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므로 소비가 미덕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절약하는 네덜란드나 독일 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조차 사치로 여겼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이 강한 북유럽 음식은 지금도 맛이 없다.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오늘에는 절약이 인류생존을 위한 도덕적 의무다. 요즘 한국인들이 너무 사치하고 쾌락에 과소비하고 있다.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된다.

구약성경이나 중세 기독교는 이자를 금지했으나 종교개혁자 칼뱅은 굶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자를 허용하므로 돈이 돈을 버는 것을 허용했다. 지금은 노동보다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고 한다. 자본은 생산을 위해서 불가결하므로 돈이 돈을 버는 것에는 도덕적 문제가 없다. 재테크도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지 않다.

그런데 도덕질을 위해서도 맘을 흘리는 것처럼 부정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로빈 후드나 홍길동처럼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도 불의하게 노동할 수 있다. 노동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만 모든 노동이 다 정당하지는 않다.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일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노동의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모든 재테크가 다 바람직하지는 않고 어떤 재테크는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한 재테크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다. 저축된 돈이 생산에 이용되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저축의 연장으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에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일하는 것

이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여윳돈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많이 공헌하도록 투자하면 그 재산을 얻기 위한 노동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칼뱅이 법정 이자만 받도록 한 것 같이 재테크도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지나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불로소득의 불의를 범할 수 있다. 증권 같이 수익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도 수익만을 위한 단타 매매를 피해야 하며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복권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사행성이 강하므로 그리스도인의 투자로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가상화폐는 마약 거래, 돈세탁, 북한의 해킹 등 범죄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현대 사회에 큰 재앙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건전한 시민은 전염병처럼 피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한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 못지않게 재테크에 투자한 자본도 그것이 생산에 공헌한 만큼만 이익을 얻는 것이 공정하다. 그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행에 속한다.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고, 모든 다른 추가소득에는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와 신앙적 성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주가가 매일 최고점을 갱신하는 가운데, 온 국민이 재테크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뚜렷한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선>은 정당한 소득의 기본이 노동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재테크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나, 과도한 이윤 추구하고 투기, 사행성 투자는 경계해야 하며, 생산과 사회적 선(善)에 기여하는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집>에서 권연경 교수님은 돈과 삶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말고, 그 긴장을 견디며 씩씩하되,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소중한 가치들이 희석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권오병 교수님은 교회 안에서 주식 보유와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범적 합의가 부족하고, 개신교 청년층이 단기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위험 자산에 참여하는 경향을 우려하며 신앙과 재무 행위의 관계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권용우 형제님은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어 '소외공포'(FOMO)를 느낀다며, 투자 행위 자체보다 돈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계하되, "어떤 마음과 원칙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박다윗 교수님은 재테크의 본질을 '목적'과 '관리'로 정의하며, 신앙인에게 재테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제와 연결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장부를 펼쳐 양심을 점검하는 자세를 주문합니다. 문성엽 형제님은 2030 청년 세대가 소득이 물

가와 소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본 격차를 단번에 좁히고자 하는 유희과 일확천금의 기대에 쉽게 노출되어 이전 세대보다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토로합니다.

신동준 교수님 역시 '소외공포'(FOMO)와 '벼락 금지' 현상이 청년들을 디지털 자산 투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리스도인은 재테크가 단순한 기술인지 아니면 신앙의 연장선에 놓인 삶의 태도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정윤 교수님은 금융 문해력의 부족이 개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지기 정신과 금융 문해력을 함께 갖추어야만 우량한 투자와 지혜로운 재정 관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선복 교수님은 2030 세대의 재테크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근로 소득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주식과 가상화폐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짚습니다. 안경상 부사장님은 투자를 청지기적 책임과 공동선, 덕 윤리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자산 배분, 투자 비중 제한, 차입 금지, 분별력 있는 선택, 정기 점검 등 재테크가 공동선을 위한 청지기적 실천이 될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석종준 선교사님이 조성표 교수님, 조인영 교수님, 장요한 전도사님과 대담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저축이나 부동산보다 주

식 등 금융 투자에 왜 더 큰 관심을 보이는지, 이를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기독교적 재테크는 어떤 방법과 접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학회 부회장 김철수 교수님은 ISF 지부 운영, 프리에반젤리즘(pre-evangelism) 모임, 팀 티칭 기독교 세계관 강좌 개설 등 전국 기독교수선교 연합과 조선대학교에서 캠퍼스 선교를 확장해 온 과정을 나눕니다.

〈청년 시론〉에서 임태빈 형제님은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을 돌아보며, 주가 변동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유익을 바라보는 ‘사랑의 동역’ 관점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부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재테크의 참된 목적임도 강조합니다. 김태준 형제님은 ‘성경적 투자’를 찾고자 했으나 완전히 순수한 동기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일조와 나눔을 통해 돈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결단한 간증을 나눕니다. 김소람 자매님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한 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신뢰와 순종임을 배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강진구 교수님은 영화 〈타짜〉 시리즈와 〈시민덕회〉를 통해 돈과 인간의 탐욕을 성찰하도록 안내하며, 영화 관람 이후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를 제시합니다. 〈미술을 보다〉에서 서성록 교수님은 바바라 크루거의 〈Money Can Buy You Love〉와 렘브란트의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을 사례로 들며, 그리스도인의 재투자를 미적 구속과 공적 진리 증언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책

을 보다〉에서 이승우 전무님은 〈돈 걱정 없는 인생〉을 통해 재정 문제를 신앙과 분리하지 않고 삶 전체를 비추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하며, 돈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다고 평합니다. 양성만 교수님은 〈강연안의 공부한다는 것〉을 통해 공부와 존재, 진리를 향한 태도를 깊이 사유하도록 안내합니다.

〈교회로〉에서 캐나다 켈로나 한인장로교회의 김준호 목사님은 김윤경 집사님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신앙 교육의 회복을 추구하고, 어린이·청소년·장년 교육과 수련회를 통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비전을 소개합니다. 〈온전한 지성〉에서 최용준 교수님은 로타 크라이식의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합니다.

또한 2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AI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라는 주제로 89명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한 ‘제10회 기독교청년학생 북콘서트’의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호를 보며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은 통찰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글을 보내주신 필진, 늘 함께 수고하는 편집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샬롬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성서 신학자의 재테크에 관한 단상

권연경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 신약학)



분명한 원칙, 복잡한 현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대’(갈 1:4)라 불렀다. 그 이후 세상이 착해진 흔적은 없다. 오히려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세대의 악 역시 더 교묘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만큼 선악의 판단도 어려워졌다. 선악의 경계가 희미해서가 아니라, 현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인 탓이다. 소위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원리를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 상황에서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복잡하게 꼬인 사회구조와의 관계를 타고 흐르며 이를 움직이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다.

오래전 금융회사에 다니던 한 선배가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도 되냐?”고 물었다. 여러 해 주식을 다루며 늘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성서학자인 나한테 물어본 거였다. 당연히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책으로 배운 얇은 지식을 빼면, 그때 나한테는 실제 주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더 잘 아는 형이 나한테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하고 되물었다. 그때 당황하던 선배의 얼굴이 자주 생각난다.

‘재테크’는 흥미로운 신조어다. 예전 같으면 ‘재산 증식’이라 말했을 것이 이제는 재산을 부리는 ‘기술’(테크)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의 표현이 재산을 ‘부리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재테크는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별것 아닌 것도 같지만, 이런 신조어는 재산 증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재산 증식은 예민한 도덕적 문제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얽혀 사는 세상에서 내 재산의 증가는 대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다. 재테크라는 말은 재산 증식을 익혀서 써먹으면 되는 하나의 ‘기술’로 축소함으로써 그런 불편한 질문을 피해간다. 하지만 위험하다. 신앙이 응당 제기해야 할 질문을 막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롬 12:2).

안정된 삶 - 신앙과 욕망 사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한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 든든한 내일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이다(전 5:18-19; 전 10:19).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피할 수 없는 긴장을 느낀다. 우리 존재의 궁극적 안전장치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삶의 안정을 위한 현실적 수단인 돈에 대한 사랑 사이의 갈등이다. 마치 예전의 약소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라는 신앙적 안전장치 그리고 주변 강대국 의존이라는 현실적 보험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 이 긴장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악에 물든 삶의 구조라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근원적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 속 안전망 구축하는 방법을 찾으려 애를 쓴다. 결코 거룩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나의 재테크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즉답은 없어도, 이런 긴장을 견디며 불편한 물음을 묻는 용기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한 중요한 자태일 것이다.

우상이 된 mamon, 상품이 된 삶

최근 통계조사에 의하면, OECD 조사 대상 17개국 중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다. 돈이 중요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가족’조차 제치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 사실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야말로 수단과 목적의 순서가 뒤집힌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mamon’이 하나님 대신 우리 삶의 최고가치가 되었다는 뜻이다.

언젠가 식당에서 중년여성들 가까이 앉은 적이 있다. 식사하던 내내 그들의 대화 주제는 ‘아파트’였다. 중년 아저씨들 경우에도 가장 익숙한 화제는 부동산이었

다. 한번은 뒤늦게 어떤 교수들 모임에 갔는데, ‘펀드’ 이야기가 한참이었다. 무슨 장학금 펀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투자 ‘펀드’ 이야기였다. 윗물이 이러면 아랫물이 다를 수 없다.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갔다 와도 좋다”는 설문에 절반이 넘는 고등학생이 “그렇다”라고 했다. 같은 답을 한 경우가 중학생은 40%, 초등학생은 20%가 넘었다. 큰돈이 생긴다면 설사 범죄라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그야말로 ‘돈이 전부’(마 6:24)라는 신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된 셈이다.

돈이 있어야 먹고사는 만큼, 돈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나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서 정작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팽개치게 된다는 사실이다(잠 11:28, 딤후 6:10). 가령 집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물리적 터전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꼭 맞는 집을 찾는 게 지혜다. 하지만 우리는 대신 ‘투자 가치’를 따지고, ‘값이 올라갈’ 그런 집을 찾는다. 가정이라는 삶의 가치가 투자 가치에 잠식당하는 것이다. 다는 아니겠지만, 가족의 일상이 유튜브 콘텐츠가 되는 경우도 비슷하다. 시대가 재테크에 몰두할수록, 내 삶을 상품화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지키려는 결연함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FAITH & LIFE**



✍ 글쓴이 권연경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신약학 교수이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M.Div.)와 예일대학교 신학부(S.T.M.)를 거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와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로마서 산책>, <행위 없는 구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등이 있고, <일상, 부활을 살다>, <IVP 성경신학사전>, <예수의 정치학>, <기독교와 문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그리스도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 조사

권오병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늘날 개인의 재테크 수단은 전통적인 예금과 부동산을 넘어 외환, 금, 주식, 암호화폐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환율 상승, 저금리 기조, 그리고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청·장년층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형성에 구조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금융자산으로 관심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식투자는 많은 개인에게 대안적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정당한 투자’로 볼 것인지 혹은 ‘투기적 행위’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교회와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일관되지 않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주식 보유와 거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해석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주식투자를 무조건적 투기로 간주할 경우, 교회 청년층은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해 도덕적 부담이나 죄책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주식투자를 정

상적인 투자 행위로 인정하더라도,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빈번한 매매는 장기적 가치 창출이라는 주식투자의 본래 취지와 괴리될 뿐 아니라, 기독교적 경건 생활과의 긴장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주식투자 인식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2026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국내 대표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36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 문헌에 기반하여 설문 항목을 구성하고 5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조절을 한 후에 360명에 대해서 본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개신교인 180명, 비개신교인(천주교, 불교, 무교 등) 180명 등 각 50%씩 확보하였다. 연령은 20대 68명(19%), 30대 83명(23%), 40대 97명(27%), 그리고 50대 및 그 이상은 112명(31%)이었다. 성별은 남 184명(51%), 여 176명(4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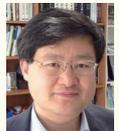
응답 결과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성이 낮은 설문 항목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로 분석을 했다. 조사 결과, 주식을 매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즉각적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개신교인 3.19점(1점: 전혀 그렇지 않음, 7점: 매우 그러함), 비개신교인 2.87점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개신교인이 더 높게 응답하였다. 그에 반해 심리적 회계, 즉 급여 등 일반적인 돈의 개념과 주식투자에서 확보하는 돈의 개념이 주관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여부에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규범적 신념에서도 개신교인 여부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주식 투자를 위한 주식모바일앱 사용 시간에서도 종교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주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3.87점, 비개신교인 3.81점 등으로 미세하게나마 투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었다(순위참고 : 1위 투자로 확신함, 4위 중립, 7위 투기로 확인함). 단, 이 인식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암호화폐를 함께 투자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개신교인 응답자 중 40%, 비개신교인 45%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는 응답이었다. 그리고 이 차이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보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주식을 투기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교 집단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교회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온 신앙인에게 주식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투기적이라는 불편한 시각이 실제 신자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회는 주식투자 자체를 도덕적으로 일괄 평가하기보다는, 어떤 방식과 동기로 주식을 바라보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 권면 및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 보상 인식이 개신교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점에 대한 목회적 주의가 필요하다. 개신교인은 주식 거래의 동기로서 즉각적 보상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교인들은 현대 금융 환경의 보상 구조와 심리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는 주식투자 와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하기보다 단기성과 중심의 재무 행동이 신앙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성찰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개신교인 응답자 중 40%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는 결과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이 교회 내부에서도 상당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투자 윤리를 넘어, 투기성 자산이나 기술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목회적 논의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미세하게나마 주식투자를 투기보다는 투자에 가까운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개신교인에게서 단기적 보상에 대한 인식과 암호화폐 등 고위험 자산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특이하다. 교회와 신학계는 이 부분 염두에 두어 현대 금융 환경 속에서 신앙과 재무 행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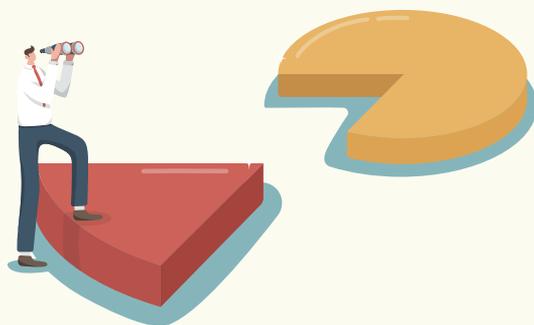


글쓴이 권오병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경영과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1996~2003), 미국 카네기멜론대 방문과학자(2002~2003), Asis Pacific Journal of Business Review 편집위원장, 차세대정보기술연구센터 센터장, SSK 4차산업혁명연구단장, 경희대 부총장,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동문교회 장로이다.

도구인가, 이상인가: 투자 앞에서의 신앙

권용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요즘은 학교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식과 코인 이야기가 오간다. 누가 어느 종목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혹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까지도 스스럼없이 공유한다. 나 역시 주변의 학부, 대학원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재테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나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다. 소위 '소외공포'(FOMO)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 본다"라는 불안을 키우는 듯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 순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 미래의 확실성을 붙잡고 싶은 마음과 연결된다. 그래서 2030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재테크를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자르기보다 이렇게 묻고 싶다. 우리는 왜 투자하는가? 어떻게 투자하는가? 무엇을 위해 투자하는가?

왜 2030 세대는 주식과 코인에 끌리는가?

많은 사람이 "요즘 청년들은 한 방을 노린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적이라고 느낀다. 물론 단기간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체감

하기로는 그 바닥에 더 크게 자리한 감정은 '불안'이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을 반복해 왔다. 주식,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장면을 계속 보다 보면 "투자자산이 흔들린다."를 넘어 "내가 권 돈의 가치 자체가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감각이 커진다. 물가와 생활비를 체감할수록 일해서 번 돈이 삶을 안정시킨다는 확신도 약해진다. 몇 달 전에는 가능했던 소비가 오늘은 망설여지고, 때로는 투자 평가이익이 몇 달 월급보다 커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의미가 뭐지?"라는 질문이 스친다. 이는 게으름의 고백이 아니라 노동의 보상이 미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나오는 질문에 가깝다. 결혼, 출산, 주거 같은 장기 계획을 떠올리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자에서 '출구'를 찾고 싶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감정이 더 커지는 것 같다.

투자과 투기의 경계

그러나 이 열풍이 건강한가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

다. 변동성은 큰 수익 가능성과 함께 큰 손실 가능성도 동반한다. “수익이 커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뛰어들면 재테크가 아니라 더 큰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투자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행위이기에 최소한의 근거와 원칙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재무 정보보다 “누가 이거로 벌었다더라”, “지금 들어가야 한다더라” 같은 말에 흔들리는 듯하다. 이때 투자는 빠르게 투기로 변질되고, 사람을 탐욕뿐 아니라 두려움에도 묶여 둔다. 더 근본적인 위험은 투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계획이 없고 손실을 감당할 준비도 없는데도 “안하면 더 불안해서” 들어가면,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은 더 흔들린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주식과 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단순히 멀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달란트를 물어 둔 종을 꾸짖으신 말씀(마 25:14-30)처럼 방관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볼 수 있는가? 나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투자 그 자체보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을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돈을 단정적으로 악이라 하기보다, 돈이 인간의 마음을 붙잡는 위험을 경고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준은 “하느나, 마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원칙으로 하느냐”에 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목적.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가족의 책임, 미래 대비, 이웃을 돕고 나누는 삶, 하나님께 맡기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목적이 중심이어야 한다. 목적이 어느새 “더 많이, 더 빨리”로 바뀌는 순간이 위험하다.

둘째, 방식.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조건 불려라’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라는 요청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투자는 ‘한 방’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분산과 절제, 이해 가능한 선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청지기적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동기 점검. 투자를 시작하기 전,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려는가?”, “남들이 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이 선택이 예배와 관계를 무너뜨리지는 않는가?” 불안이 운전대를 잡으면 투자는 쉽게 중독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불안을 투자로 해결하기보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청년들의 투자 열풍에는 욕심만이 아니라 불안과 막막함이 있다. 그래서 정죄보다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해가 모든 방식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자원을 다루는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정직한가를 묻는 문제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도구가 될 수도,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청지기, 우상’의 문제이며, 그 경계는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를 기도 가운데 점검하는 데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권용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생산운영관리를 전공하고 있다. 학부는 경영학, 석사는 데이터사이언스를 전공했다. 관심 분야는 ‘인도주의 공급망’(Humanitarian Supply Chain)과 ‘지속가능 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이며 최근에는 푸드뱅크 운영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회계에서 시작하자

박다윗 (홍콩 중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재테크 이야기는 자연스럽다. 주식, 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이야기가 모임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 휴대폰 하나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어플도 많이 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질문을 달리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왜 재테크를 하는가”와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가”를 심사숙고해 보자는 것이다. 재테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투자 전략이나 수익률을 먼저 떠올린다. 사실 재테크는 재무 테크놀로지의 줄임말이다. 재무는 제한된 자원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테크놀로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식과 도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단어를 합친 재테크는 불확실

한 미래를 앞두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즉 재테크의 본질은 목적과 관리에 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맡기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의 전공 분야인 회계라는 재테크를 소개한다. 회계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기록하는 체계이다. 회계는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드러내는 구조이다. 그래서 회계는 신뢰를 만들고, 책임을 분명히 한다.

역사 속에서도 회계는 단순한 상업 기술 이상이었다. 회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카 파치올리(Fra Luca Bartolomeo de Pacioli, 1447년경-1517년)는 15세기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회 수도사였다. 그는 1494년 <산술·기하·비례 총론>에서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사용하던 복식부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복식

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무엇을 얻었으면 그 출처와 책임도 함께 적는다. 증가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른다. 이 구조 자체가 정직과 책임을 요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가 이러한 체계를 정리한 데에는 신앙적 동기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상인들이 장부를 정직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서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장부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양심을 점검하는 행위였다.

오늘날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 자본을 받은 뒤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회계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회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기능은 자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주식, 코인 또는 ETF에 투자하기 전에 회계 정보를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회계의 기능은 투자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들이 월급이 부족해서 미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출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방향을 잃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신앙인의 재테크 출발점으로 개인 회계 체계를 세우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한 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둘째,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한다. 셋째, 투자와 소비의 비율을 정한다. 이 단순한 원칙과 구조의 적용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회계는 절제를 가능하게 하고, 절제는 자유를 준다. 복식부기처럼, 우리는 얻는 것과 책임을 함께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떠

올려 본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돌아와 묻는다. 얼마나 벌었는지를 묻기 전에,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묻는다. 부지런히 관리했던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주어졌다. 땅에 달란트를 묻어놓은 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주어졌다. 그리고 덧붙여 은행에 저금이라도 해놓아서 이자라도 쌓았을 것을 가르친다.

재테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장부를 펼쳐 보는 것부터가 정직한 용기일지 모른다.

FAITH & LIFE



글쓴이 박다윗

홍콩 중문대학교(선전) 경제학과 조교수이다.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회계학 전공, 금융학 부전공으로 졸업했고, 미국 공인회계사(CPA, California)와 공인부정조사사(CFE)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대학원 시절, 캠퍼스 수요열린예배 찬양팀, 기독교대학원생모임(기대모)에서 활동했다. 현재 마코르(샘근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선한 청지기의 재테크

문성엽 (보잉코리아 구매팀 직원)

최근 우리는 주변에서 재테크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나도 저만큼 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혹은 이미 수익을 본 이들의 기쁨과 안도감, 이러한 돈 이야기 앞에서 우리 가치관은 쉽게 흔들린다.

2030 청년들은 특히 이런 환경에 기존 세대보다 취약하다. 과거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지만, 생활수준 향상이 물가와 소비를 가파르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소득 성장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높은 물가에 발맞춰 높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눈높이는 과거 세대보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남보다 잘하기’가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본의 격차를 단순히 좁히고 일확천금을 이뤄낼 수 있다는 각종 정보에 현혹되기 너무나 쉬운 현실이다. 20대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기에 학업을 마치는 데에 벅차다면, 30대 청년들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높아진 주거비용을 부담하며 허덕인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소비의 규모가 커지면 한층 더 힘겨워 한다. 주변의 청년 신앙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을 위해 고생한 것에 비해 실제 연봉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상실한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다. 우리가 친숙한 성경 구절들도 재

물과 돈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경고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딤후 6:10)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 3:5)

성경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섬기는 태도를 분명히 죄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테크 자체가 곧 신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행위의 형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에 있다. 돈은 강력한 도구이며 많은 사람의 우상이 되기 쉬운 대상이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돈 앞에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성경은 돈 자체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명백히 죄라고 알려준다. 가난함에 허덕이며 무기력한 것도 좋지 못한 신앙이지만, 부유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복신앙 역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바울은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을 말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닌 중심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정과 소유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자 한다면 성경적 재테크를 해야 한다. 달란트 비

유를 기억할 것이다(마 25:14-30).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둔 달란트를 찾으러 돌아와 보니 그중 한 달란트 맡겨둔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뒤 질책을 받았다. 가령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을 겪는 시기에 이자가 없는 계좌에 돈을 장기간 쌓아 둔 사람이 금융환경의 변화를 직격탄으로 받으며 화폐 가치가 종이조각이 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자. 돈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땅에 묻어두고 시간을 낭비한 그 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달란트 비유의 진짜 의도는 맡긴 달란트로 높은 수익을 내야 했다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또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의 자세가 주인을 두려워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리석은 종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 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청지기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재테크 정보를 찾고 투자를 할 때도 그 돈을 벌어서 나의 삶의 만족을 도모하기보다 나의 주어진 영역을 잘 관리해서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재테크이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도구로서 취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바른 재정 가치관을 정립한 신앙인의 모습을 성경은 사뭇 다르게 얘기한다. 예를 들자면 사울과 다윗은 달랐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 후, “전부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겨왔던 인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고 변명해도, 그 이면에는 탐심이 있었다(삼상 15:9, 21). 반면 다윗은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전리품을 취급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담았다(삼하 8:11-12). 겉모습은 비슷해도, 중심의 동기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내가 가진 재산과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

하는 고백은 재물을 우상화하지 않는 첫걸음이다. 또 성경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의 재정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에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 돈의 쓰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있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 4:18)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발전, 디지털 화폐 체계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돈에 대한 욕망으로 재테크에 뛰어들면 자산 관리에도 실패하기 쉽고, 신앙적으로도 균형 잃을 것이다. 세상은 돈을 위해 돈을 버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흐름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투기가 아닌 책임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과 관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예배해야 한다. 목적이 개인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재물은 우상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의 길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문성업

보잉코리아 구매팀에 재직 중인 8년 차 직장인이다.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영어 통번역학을 복수전공 했다. 김해 장유중앙교회 집사이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 소유를 넘어 연결과 나눔으로

신동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오늘날 한국 사회의 2030 세대에게 주식투자와 재테크는 일상의 언어가 되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모바일 플랫폼이 가져온 투자의 낮아진 문턱, 그리고 나만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소외공포’(FOMO)와 ‘벼락거지’라는 서글픈 표현은 청년들을 자본시장의 거친 파도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는 요동치는 시세판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질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재테크란 신앙과 구분된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기술인가, 아니면 신앙의 연장선에 있는 삶의 태도인가.

자본시장의 최전선인 펀드매니저로 일하던 시절, 매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밑바닥에 깔린 내 기도의 본질이 결국 “오늘 하루도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게 하소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직업적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냉혹하게 말해 자본시장은 누군가의 이익이 누군가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의 성격을 띤다. 내가 저점에서 싸게 매수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낮은 가격에 팔아 괴로워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내가 고점에서 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비

싼 가격에 자산을 떠안았다는 뜻이다. 특히 재벌 가문의 자금 운용을 맡았을 때는 그들의 부를 불러주기 위해 내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는 회의감으로 신앙적 고뇌는 더 깊어졌다. 내 직업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탐욕이 가득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의 끝에서 실마리를 찾은 것은 금융의 ‘본질’이었다. 금융의 본질은 소위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 아니라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곳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을 연결해 주는 일이다. 내가 투자한 자본이 누군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마중물이 되는 것, 그것이 투자의 진정한 가치다.

이러한 깨달음은 직업관의 변화로 이어졌다. 단순히 매매 차익에 몰입하기보다, 많은 이가 투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돕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서 더 큰 평안을 찾았다. 나의 분석을 통해 많은 사람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정책 당국이나 기업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소명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업에 신앙적 철학과 의미를 담아 일할 때 비로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소명에 충실할 때 경제적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도 경험했다.

그리스도인이 재테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단기 수익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다. 수익을 쫓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소명인 '본업'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평소 금융시장 분석에는 냉정하다가도 욕심이 생겨 직접 '내 돈'을 투자해 단기 수익을 내려 하면,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예측이 번번이 빗나갔다. 자본시장을 매일 들여다보는 전문가조차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 시장의 큰 추세를 보는 눈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본업을 지키며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특정 종목의 매매에 집착하기보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산업,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메가트렌드 산업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담는 장기 적립식 투자'를 실천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은 변동성이 높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쉽지만, 산업 자체가 성장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산업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묶어 매월 기계적으로 투자할 때 훨씬 마음 편히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내 본업에서 나온 월급을 통해 혁신 기업들이 일한 결과를 나눠 갖도록 세팅하는 것은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막아내는 영적인 방패가 된다. 자주 계좌를 열어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다.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늘어서 좋고, 하락하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겨서 좋다는 마음의 여유가 본업과 신앙의 중심을 지켜준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 지혜와 재물은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나와 가족의 생애를 책임 있게 돌보며 건강한 사회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다. 나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을 성실히 관리하여 자신과 가정을 부양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의 마땅한 책무다. 둘째는 그 이상의 여유 자금을 선하게 흘러

보내는 나눔에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일부를 구별하여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내 삶을 준비하고 맡겨진 물질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투자의 종착역이자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한다.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관리자로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재테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과제다. 그러나 조급함에 매몰되어 삶의 주권을 재물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곳에 자본을 연결하고, 단기 수익이 아닌 산업 전체의 성장과 동행하며 일상의 평온을 지키길 권한다. 그렇게 얻어진 수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야 한다.

우리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 투자는 우리를 옹아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청년들의 가슴 속에 먼저 깃들기를, 우리의 재테크가 거룩한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신동준

송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와 혁신신약개발 기업의 CFO로 재직 중이다. 경제학 박사이자 금융 전문가로, KB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자산관리 최고투자책임자(WM CIO)를 역임했다. 18년간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를 지키며 자본시장의 전락가로 활동해 왔으며,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기금의 자문위원을 지냈다. 신앙과 전문성의 조화를 늘 고민한다. 서울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다.

돈, 신앙, 그리고 지혜로운 투자

박정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왜 금융 문맹이 문제일까?

글을 모르는 문맹이 인생에 큰 제약을 주듯, 금융 문맹은 한 사람의 삶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지 아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에서 돈과 소유를 다루셨다. 이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신앙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경은 자원 관리에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낭비(浪費)하는 것이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허비한 것처럼, 무책임한 사용은 어리석은 일이다.(눅 15:11-32). 둘째, 사장(死藏)시키는 것이다. 맑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처럼 자원을 묶어두는 것은 지혜로운 경영을 원하는 주인의 뜻과 다르다.(마 25:14-30). 셋째, 투

자(投資)하는 것이다. 맑은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종들처럼, 위험을 감수하되 주인의 뜻에 맞게 자원을 불리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따라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다.

교회 안에서도 금융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학에서는 생활 재무관리와 투자론을 통해 예산 관리, 저축, 주택 구입, 주식투자 등을 가르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금융에 대해 문맹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식투자는 위험하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우량기업에 투자하여 자원을 불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라는 관점을 가르쳐야 한다.

작은 경험이 큰 배움이 된다
가정에서도 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명절에 받은 세뱃돈을 주식투자자로 활용하게 하여 큰 수익을 경험하게 한 경우는 금융 교육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 청년들의 투자 경험의 사례도 많이 있다.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이 소액으로 팀을 이루어 투자한 결과, 다수의 팀이 건전하고 주목할 만한 수익을 거두었다. 이는 올바른 교육과 경험이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길임을 보여준다.

돈은 어떻게 신앙과 연결될까?

재테크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근심 없는 풍성함이며, 이는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지혜를 배우되, 그 결과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삶의 태도이다. 주식투자 역시 그 자원을 활용하는 한 방법일 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다.

신앙과 삶을 잇는 재테크

그리스도인은 금융에 대한 문맹을 벗어나야 한다.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우량한 투자와 지혜로운 재정 관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재테크는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이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신앙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금융에 대한 문맹 상태에 머물러 자원을 지

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낭비와 사장보다 투자와 청지기의 자세를 강조하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재테크에 관한 바른 태도, 실제 사례와 성경적 원리를 통해, 돈을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길의 작은 안내가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정운

영남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다. '행복한 부자학회'를 창립하여 행복한 부자의 길을 연구하면서, 교육과 저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 저서로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부자학>,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증권투자>, <성경으로 배우는 행복한 기업경영>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 : 내 것을 넘어 주님의 것 관리로

이선복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생존'이다. 2030 세대의 재테크가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 벼랑 끝에서 잡은 동아줄과 같은 것이 되었다. 근로소득 가치가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가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들에게 매혹적인 투자방법으로 인식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기술 발달은 투자 문턱을 더욱 낮추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열풍이 우리 마음속에 포모(FOMO)라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나만 "뒤 처진다"라는 공포, 이번 장(場)을 놓치면 평생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예외 없이 휘몰아치고 있다. 윗세대가 부동산과 저축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앞에서, 청년들은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에 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는 자산 증식 행위를 흔히 탐욕이란 프레임으로 가두곤 했다. 그러나 지금의 재테크 열

풍을 단순히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는 것은 가혹할뿐더러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요셉, 또 욥에게 많은 재물이 허락하였듯이 부(富)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 부가 형성되는 동기와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가 세상의 것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투자에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

- 1) Why(왜 하는가): 단지 노후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쌓는 이상승배인가, 아니면 하나님ی 맡기신 삶의 터전을 성실히 이루기 위한 책임인가?
- 2) How(어떻게 하는가): 타인의 손실 위에 획득한제로섬 내지는 투기적 수익 게임인가, 아니면 경제 생태계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가치 투자인가?

성경적 기준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은 내 것을 불리하는 것을 넘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무'(Stewardship)가 수반되어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칼뱅(Calvin)이 <기독교강요>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반항을 일으켰듯이, 오늘 우리의 투자의 소명도 그러한 본질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소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여야 한다. 재테크가 본업을 마비시키고 일상의 평안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 중독이다.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다. 재테크는 노동의 결실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보조적 수단이지, 노동 그 자체를 대체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웃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특정 자산의 버블이 누군가에게는 주거 박탈과 절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에 자본을 흘러보내는 방식은 훌륭한 신앙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족의 비결을 학습하는 훈련이어야 한다. 10%의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재테크는 자산의 숫자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성숙과 체질을 키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월 뉴욕 월스트리트를 여행하며 황소(Charging Bull) 조형물을 볼 수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며 재테크 자체를 죄악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였듯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탐심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 모

바일폰 화면 속에 담긴 숫자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거나, 일과 시간에 몰입하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 진정한 자산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미'(Already) 오신 메시야와 '다시'(Not Yet)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포모(FOMO)의 공포를 넘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경제 활동에 임하는 청지기 정신이 중요하다. 돈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금융시스템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것을 넘어 주님의 것으로 잘 관리하고 풍성히 쌓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드린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선복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다. 니혼(日本)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고, 경제학박사(Ph.D)를 받았다.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BCPN) 회장,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2025년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KUPM) 전회장으로 <하나님의 주권: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40년의 회고와 비전>(편저)을 출판하였다. 현재 한국로고스경영학회회장으로 섬기며 부산성시화운동본부와 세계선교협의회(KWMA) 사역을 돕고 있다. 부산칼빈신학교 신학대학원(M.Div) 과정을 마치고, 일본교회사를 주제로 학위논문(Th.D)을 쓰고 있다. <교회회계>(2015), <성경적 회계윤리>(2019), <교회와 세금>(2022) 컬럼과 교회회계실무, 일본 기독교에 관한 다수의 논문 등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안경상 (이퀴녹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



일반적으로 '투자'라 하면 주식·채권·코인·금·부동산 등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행위를 떠올린다. 이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달리 가격 변동과 손실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행위가 도박이나 요행을 바라는 투기와 혼동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의 정당성을 묻는 고민이 생기곤 한다. 여유 자산을 활용한 개인 투자는 모든 사람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주가를 확인하느라 일상을 놓치는 사람, 투자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 투자 상품의 특성과 법규를 숙지하고 적용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 관점에서 투자는 청지기적 책임, 공동선, 덕 윤리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청지기적 책임은 주어진 자원을 보존·증식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을 돌보는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업 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므로, 합법적·윤리적 방식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것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투자 행위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정의, 절제, 지혜 같은 덕목이 실천된다면 올바른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과 사회 공동체의 관계 측면에서 보자면, 상장회사는 소유권이 분산된 공적인 성격을 띠며,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이러한 가치 창출을 지지하는 신호가 된다.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정보가 반영된 가격으로 기업의 자본 조달에 영향을 주지만, 단기 변동성이 크기에 주가만으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투자할 경우, 투자는 배당주 중심의 장기 가치 투자가 특히 적합하다고 본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공동체)와 나누는 방식이며, 안정적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성장 산업

에 자본을 공급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성장주 투자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산적 활동의 일부이다. 그러나 배당주 중심의 전략은 단기적 투기 유혹을 이겨내고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조급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절제의 도구가 되어준다. 지수연동 ETF(Exchange Traded Fund)는 개별 종목보다 위험이 낮고 분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에게 권장할 만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와 투기의 분별 기준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 생산적 활동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가.

둘째, 수단: 합리적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 기반하며, 정보 비대칭이나 시장 조작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수단을 배제하는가.

셋째, 영향: 결과가 주거·생계 등 공동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거래나 무리한 '레버리지'(차입)¹⁾는 투기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거주용 부동산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만 삼는 것은 생활 필수요건인 주거의 공적 비용을 상승시킨다. 가족의 주거안정 추구는 정당하나, 다수 비거주 주택 보유로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주거 가치 독점'²⁾의 행태는 공동체의 선을 해치며 크리스천의 청지기적 사명과 배치된다.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상금 확보: 생활비 6~12개월치를 보유하여 심리적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둘째, 자산 배분: 자금의 성격에 따라 예금, 채권, 주식 순으로 지혜롭게 배분한다.

셋째, 포지션 제한: 개별 종목 직접 투자는 자산의 5~10% 이내로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넷째, 차입 금지: 탐욕을 증폭시키는 레버리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분별력 있는 선택: 무기, 담배, 도박,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등 창조 질서를 해치는 업종이나 기업을 배제하고, 공동선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별한다.

여섯째, 정기 점검: 수익의 일부를 이웃 사랑과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은 욕망과 탐욕이 첨예하게 노출되고 대립하는 곳이며 모두를 위한 영역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개인 투자자는 정직·공의·이웃 사랑의 원칙을 실무적 기준으로 전환해 적용해야 한다. 자본은 하나님이 맡기신 도구이며, 그 사용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투자가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분별력 있는 선택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관리자로 서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안경상

'이퀴눅스프라이빗에쿼티' 부사장이다. '이퀴눅스프라이빗에쿼티'는 산업기반시설에 특화된 사모펀드 회사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부)를 졸업했고, 1993년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 선교사님을 만난 후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노력해왔다. 회원이지만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계속 읽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 주님의교회 교인이다.

1) 레버리지는 차입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증폭시킨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원금 초과 손실 및 유동성 위기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주거 가치 독점은 생산적 활동 대신 자산의 희소성을 이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며 초과 이윤을 추구하는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를 포괄한다.

그리스도인의 재테크에 대하여

조성표(경북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조인영(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장요한(서울 광동교회 청년부 전도사,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최근 한국 2030 세대 청년들의 재테크 열풍이 뜨겁다.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뿐 아니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도 모이기만 하면 주식이나 코인 이야기를 흔히 나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1) 근로소득이나 월급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효과적 대비 2) 핸드폰 등과 같은 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투자 어플과 플랫폼(토스, ETF 등)의 활성화로 낮아진 진입장벽, 3)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곧 '소외공포' 등을 주목한다. 이는 윗세대의 재테크 수단이었던 저축과 부동산 투자 등이 현재 주식과 코인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단순히 옮기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성의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호 <신앙과 삶>은 '사람 사이'(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한국 청년들이 저축이나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코인 등의 재테크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배경과 상황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지, 바람직한 기독교적 재테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과 접근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한국 교회 내 관련 전문가와 청년 사역자가 함께 나눔으로써 그 지혜와 혜안을 얻고자 한다.



인터뷰어 : 석중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일시 : 2026년 2월 22일 저녁 8시 30분

장소 : zoom

석종준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의 2030 세대 청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저축이나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지는 배경과 상황을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설명하시고 싶으신지요.

조성표 재테크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저축은 이자율이 낮아서 가치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투자라서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은 적은 돈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취향에 더 맞게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되는 바는 젊은 세대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조급증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조인영 조성표 교수님 말씀에 더해 청년 세대가 처한 구조적 자산 형성 환경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금리 환경에서 예금이나 적금 같은 무위험 자산은 안정적이지만, 실질 수익률이 낮아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이러한 격차는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구조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이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투자 플랫폼의 확산 역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투기 열풍이라기보다 변화한 경제 구조 속에서 미래 불안을 해소하려는 선택의 한 양상으로 이해합니다.

장요한 저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선, 현재 우리 사회처럼 물가상승률이 높고 저금리인 상황에서 저축은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적은 이자를 받기보다는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지요. 한편, 청년들에게는 부동산은 구입을 위한 자산 마련 자체가 어렵기에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동산은 선호되는 재테크 수단이었겠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 거주 같은 실질적인 가치가 있으니깐요. 결국,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돈만큼 투자할 수 있으면서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더 관심이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전문가들은 청년 재테크 열풍의 원인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 주거비용 부담, 그리고 '나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곧 '포모'(FOMO) 심리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탐욕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가피한 생존 전략의 측면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조인영 제 생각에는 최근 우리 사회 청년층의 적극적 투자 현상을 도덕적 판단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대수명 연장과 노후 부담의 증가, 고용의 불안정성 등이 생애 전반의 재무 전략을 재설계하도록 요구한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같은 세대의 성공 사례를 실시간으로 노출하게 만들고 있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포모'(FOMO) 심리도 자극합니다. 물론 단기간의 성취를 기대하는 욕망도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조성표 교수

때, 이러한 욕망은 불안과 책임감, 그리고 미래 대비의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탐욕과 합리적 위험 선택이 혼재된 시대적 징후로 이해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요한 제가 볼 때는 탐욕과 불가피한 생존 전략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청년 재테크 열풍도 단순 탐욕 혹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 단 하나로만 명명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대박’을 노리며 하는 행위로 본다면 탐욕으로 여겨지겠으나, 낮은 임금과 높은 주거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는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코인을 선택하는 일이 불가피한 생존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이것이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는데,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나 코인의 기대수익이 무조건 저축의 이자보다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잃으면 더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성표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재테크의 일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고 아파트 청약 자격도 주는 제형저축을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은행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상대적으로



장요한 전도사

분양 가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분양만 받으면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재산의 증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분양가도 너무 높아져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온 재산을 털어서 단기간의 재테크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석종준 주목할 점은 최근에 교회 안의 청년들 역시 세상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재테크에 관한 관심과 열풍 속에 있음이 주변에서 체감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투자 사이에서 교회 안의 청년들이 겪는 긴장이나 갈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요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필요 이상의 돈을 벌어도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투자하다가 대박이 나면 많은 돈을 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 많은 돈을 경계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마 19:16-30과 그 평행 본문) 등이 그렇지요. 그렇기에 성경 말씀과 투자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저축이나 주식이나 코인은 좀 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되지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신 19:14)는 말씀도 있는데요. 과연 토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부동산 투자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투자가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당연히 고민의 대상이 됩니다.

조성표 그리스도인들도 생활인으로서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큰 부작용을 겪게 되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재물은 ‘맘몬’(Mammon)으로 되어 있어 재물에 사로잡힌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축하고 투자할 때 내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있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여 보아야 합니다.

조인영 교회 청년들 역시 동일한 사회와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가기에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자본시장은 수익률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이 두 질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분명 내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때 갈등의 핵심은 “투자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가 나의 정체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지배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종준 한국교회가 그동안 재정, 돈, 투자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성경적으로 가르쳐 왔다고 보십니까? 부족했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조성표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서 ‘돈’은 십일조에 대하여만 가르쳤지, 투자, 저축, 노후 준비 등은 터부시해 온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



조인영 교수

어떠한 투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인지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웠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돈은 세속적인 것이니 세속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조인영 저도 우리나라 교회는 돈과 투자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경계’와 ‘금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시장은 과거와 다른 구조로 작동하며, 금융 이해력은 삶의 기본 역량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원칙을 견지하되, 변화한 경제 환경을 반영한 해석과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건전한 자산관리와 윤리적 투자 역시 신앙의 영역 안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질 때, 교회는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신뢰받는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요한 물론, 헌금을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가르치는 등의 비성경적인 가르침도 있었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서 십일조 등 헌금은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하는지와 어려움에 있는 타인을 위해 내가 가진 돈을 나누어주려는 등의 성경적 가르침은 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옳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투자해야 하는지,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지는

상대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한 부분은, 몇몇 교역자가 재정 비리를 저지르거나 과도한 탐욕을 부렸던 일인 것 같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치는 자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롬 2:21).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석종준 성경에는 돈과 부(富)에 대해 양면적 메시지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지혜로운 관리와 열매를 강조하고(마 25:11-31), 다른 한편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탐욕을 경계합니다(딤후 6:10). 이 긴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조성표 성경에서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돈과 번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돈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위험한 우상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의 이러한 두 측면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 10:22)고 말씀하시면서, 돈에서의 문제와 근심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타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인영 제가 볼 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맡겨진 자원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열매 맺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점은 모순이라기보다 목적과 태도의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산 증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될 때 왜곡이 발생합니다. 달란트 비

유는 무책임한 방치를 경계하고, 디모데전서는 욕망의 지배를 경계합니다.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본문은 신학적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장요한 저는 그것이 양면적 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관리와 탐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의 신이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부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가장 균형적인 표현은 아굴의 기도라고 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 이 아굴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공명하는 듯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 눅 11:3)라는 주기도문의 말씀 말입니다.

석종준 그리스도인도 채테크를 하는 것이 성경적일 수 있다면, 바른 투자, 즉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성표 저는 투자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는 여윌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윌돈이란 투자에 실패하여도 우리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기에 차입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할 때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기에 앞서,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실패 시 나와 우리 집이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면 그 투자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급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여 위험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몰빵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

다. 마지막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꾸준한 수익원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이 외에도 본인의 원칙을 세워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요한 우선, 성경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자 대상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코인에 단타로 투자를 한다면 실시간 그래프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워지겠지요. 그때 이로 인해 교회에 결석하거나 성경 읽기 등의 개인 경건 생활에 소홀해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의 결과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지, 사회에 무슨 유익을 주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 채테크인 리셀(resell) 채테크를 생각해봅니다. 리셀 채테크는 요즘 우리 사회 MZ 세대들 사이의 채테크로 아주 핫(hot)한 것인데요. 단순히 내가 '한정판 스니커즈' 같은 상품을 샀다가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소비자에게 되파는 리셀링(reselling)이 과연 타인과 사회를 위해 무엇이 유익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영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투자할 때 몇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투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비교나 과시가 아니라 생애주기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투자 대상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방식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익과 손실에 마음이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석종준 마지막으로 재테크 열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청년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자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조성표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돈을 모으며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투자 열풍은 조금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조금한 투자는 거의 실패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량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도 성공합니다. 일생 전체를 조망하며 평생재정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투자 원칙 아래에 꾸준히 재산을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입니다. 돈에 신앙양심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조인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투자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지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급함과 비교 의식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자신의 소명과 장기적 삶의 방향 속에서 재정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경제 구조는 빠르게 변하지만 성실함과 절제, 책임과 나눔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관리는 세속적 욕망이 아니라 성숙한 청지기적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장요한 실천신학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지요, 기독교 교육의 주인도 하나님이지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테크 열풍 속 우리는 재테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AITH & LIFE

묻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김철수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기학연 기획부학회장)



지난 2월 6일(금)~7일(토)에 서울대학교 사범대 11동 107호실에서 “AI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라는 주제로 ‘제10회 기독교청년학생 북콘서트’가 열렸다. 첫날 6일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포스트휴머니즘과 AI를 주제로 한 대학원생들의 발제와 토론이 뜨겁게 이어졌고, 다음날 7일에는 관련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이 진행되었다.

우선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금요일 밤늦은 시간에 강의실을 가득 메운 젊은 그리스도인 연구자들의 숫자였고, 그다음으로는 발제와 토론에 나선 학생들의 예리한 통찰과 지성의 용기와 열기, 그리고 행사를 섬기는 지체들의 깊은 사랑의 모습이였다.

예측 불가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예리한 그리스도인의 지성으로 성찰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정립하고자 하는 치열한 시도와 노력이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다.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해 오신 석종준 선교사님(서울대 북클럽 지도목사)의 지속적인 안내 덕분에 북콘서트의 소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지만,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박 2일의 행사에 다녀오는 길에 이곳으로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다. 물론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요 21:17)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온전한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몇 해 전, 재직 중인 조선대학교의 기독교수회장과 광주·전남권 캠퍼스 기독교수연합회장을 거쳐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의 회장으로 섬기면서 시선이 전국을 향하게 되어, 전국의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캠퍼스 선교 활동을 접할 수 있었다.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양강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섬김,’ ‘영어를 접착점으로 하는 선교전략인 Pre-evangelism 활동,’ ‘중등학교 진로지도,’ ‘캠퍼스에 교회 세우기,’ ‘보호종료 아동 후원’ 등 어마어마한 사역

들이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와 전남의 대학에서도 그러한 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예컨대 전남대학교의 경우 십여 년에 걸친 기도와 헌신 끝에 '빛고을 글로벌크리스천센터'가 문을 열었고, '삶과의 지적 대화'라는 제목의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십 년 이상 개설되고 있었고, 국제학생회(ISF,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라는 단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성실히 섬기고 있었고, 나주에 소재한 동신대학교에서는 '기독교장인 연합회'가 결성되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예배하며 선교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학교의 기독교교수회가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선교와 봉사로 섬기고 있었다.

이제 내가 재직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기독교수회에서도 그러한 원심적인 선교와 봉사가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중책을 연거푸 맡게되면서 소망이 커진 나는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캠퍼스 사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의 근원은 몇 년 전 광주전남기독교수연합회 온라인 기도회에서 전남대 최혜영 교수께서 언급하신 ALDO(Ask, Listen, Discern, and Obey)였다.

묻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그 기도의 응답은 참으로 놀라웠다. 목사이자 교수로서 우리 대학의 기독교수회회장을 역임하시고 학교 근처에 교회를 세워 오랫동안 섬겨오시던 교수님께서 교회의 이름을 '조선대교회'로 바꿔도 좋다는 의견을 주셨고,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는 ISF 조선대 지부가 생겼으며, pre-evangelism 모임이 시작되었다. 작년 1학기에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12명의 교수가 팀 티칭으로 진행하는 '시대와의 대화 : 무엇을 보고 들

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개설되어 매 학기 6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덧붙여, 광주전남기독교수연합회에서는 드디어 고등학교의 초청을 받아 진로지도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은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국내의 모든 지역에서도 '청년 그리스도인 북콘서트'가 열려 그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게 해 주소서!"가 될 것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각종 악기와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학생들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독서와 사유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배우고 진리를 분명하게 변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악하고 혼란스러워져 간다.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는 온통 암울한 예측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자라나는 뿌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비전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FAITH & LIFE**



글쓴이 김철수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이다. 영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주 전공인 현대 영미 소설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평에 관심을 두고 있다. 광주·전남권 기독교수연합회장,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의 회장으로 섬겼으며 캠퍼스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봉사하고 있다. 기독교학문연구회 기획부회장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으로도 있다. 광주동명교회 장로이다.

주식투자 경험으로 배운 세 가지 교훈

임태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부생)

나는 서울대 CCC와 기독교생 북클럽을 통해 사랑과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대학생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재테크와 주식은 일상의 언어가 되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재테크 열기는 뜨겁다. 누군가는 이를 "돈에 매이는 것"이라며 경계하고, 누군가는 '지혜로운 재정 관리'라며 옹호한다. 그렇기에 나는 이번 '청년 시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재테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나의 6년의 주식투자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논하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나, 나의 행동이 형제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고전 8:4)를 강조했던 것처럼, 투자의 행위 자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사랑'과 '칭지기적 사명'이라는 본질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나의 투자는 중학교 3학년 시절, 은값 폭락 사태를 분석하며 실물 은을 구매했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6년 동안 다양한 기업을 분석하며 투자하는 과정에서, 초기 주가에 일회일비하던 태도에서 점차 기업의 미래 비전에 집중하는 장기 투자의 태도를 훈련해

왔다. 그렇다면 성경은 '재정과 물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은 물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조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임을 일깨워 준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 10:4)라는 말씀처럼 물질은 성실한 노동의 대가이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후 6:10)라는 경고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적극적인 칭지기적 사명'을 요구한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에베소서 4:28)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자산을 쌓는 자나 돈을 무조건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여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재정을 통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랑이 담긴 열심으로 적극적인 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지난 6년 간의 주식투자 경험을 돌아보며 배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첫째, 주가에 마음이 매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투자 초기에, 주가 변동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누구나 겪는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마 6:21)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늘 상급을 향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의 풍요가 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투자를 ‘사랑’의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스스로에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기꺼이 도울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는 나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투자를 단순히 개인의 수익 수단으로만 여겼던 과거를 반성하며, 이제는 기업이 정직하게 성장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걷는 ‘동역’이 투자임을 깨달았다.

셋째, 어떻게 모을지보다 ‘어떻게 사용할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의무감뿐이라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듯이, 청지기의 투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부산 ‘이재모 피자’의 장로님을 뵈고 삶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분은 큰 부를 일구셨음에도 검소한 삶을

유지하시며, 그 재정을 상권 활성화와 직원 복지, 장학재단을 통한 이웃 섬김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셨다. 이를 통해 제테크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쓰임’임을 깊이 체감했다. ‘사랑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랑으로 모으는 것’은 이제 내 투자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건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청년 시론’을 작성하며 ‘청지기적 사명과 사랑’의 관점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주식 시장은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법”(눅 16:10)을 가르쳐주는 치열한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 청지기로서 사랑으로 투자하고 나눌 때, 우리의 투자는 비로소 하늘 상급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임태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현재 서울대 CCC 순장과 서울대 기독교학생 북클럽(학부) 멤버, 사랑의교회 대학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테크하는 이십 대 청년의 솔직한 고민

김태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전 포스코 직원)

투자가 선택이 아닌 시대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21)

요즘 어딜 가나 재테크 이야기로 가득하다. '코스피 5000시대', '끝없이 오르는 미국 증시', '살인적인 물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나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 흔히 주식을 하지 않고 현금만 보유하는 것을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가치가 계속 변동하는, 엄밀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원화'라는 대한민국 화폐에 내 모든 자산을 묶어두는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나의 이러한 생각에 기반해서,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했던 과정에 대한 정리이다. 만약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찾아가는 중이다.

'깨끗하게' 벌고 싶다는 욕심

나는 처음에는 소위 '성경적 투자'의 정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말씀을 찾아보고, 관련 강의들도 열심히 들었

다. 개인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하나님, 저는 투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자신을 먼저 납득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떳떳하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의 투자와는 다른, '거룩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었다. 어쩌면 내 수익이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변명할 거리를 찾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며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조금 의외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애당초 완벽하게 '깨끗하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다.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주식투자를 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도 내 안에는 늘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탐욕이 있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더 많이 움켜쥐고 싶은 욕망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내가 그토록 찾았던 '깨끗한 투자법'은 어쩌면,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한 내 모습을 '거룩함'으로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는 시도는 아니었을까?



인정,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 순수한 동기로 돈을 벌 수 없는 존재구나.”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것은 포기나 방종이 아니다. 나의 의로움과 도덕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던 힘을 빼게 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산해 낸 부(富)가 온전히 깨끗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멈추지 않되,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몇 가지 현실적인 장치들을 두기로 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홀려보냄'이다. 십일조나 이웃을 위한 후원 등을 통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떼어낸다. 이는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라기보다, 나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이 돈은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일 뿐,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과정이다. 돈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돈에 묶여 썩지 않도록 강제로 물꼬를 트는 것이다.

물론,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행위조차 나의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변명'이거나, 남들에게 경건

해 보이기 위한 포장일 수도 있다. 나 역시 그 가능성을 온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이것을 그렇게라도 해서 나의 중심을 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자 노력이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 질문하며, 내 생각과 행동을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족하고 모순적인 나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재테크를 하고 있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도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서 있는 고민의 지점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도 주님과 함께 지혜롭고 아름답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길 응원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태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에 입사해서 근무했고 현재는 다시 취업준생으로 돌아와 적성에 더 잘 맞는 일터를 찾고 있다. 대학 시절 예수전도단(YWAM, Youth with a mission)에서 활동했다. 숫자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말김을 연습하다

김소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



자율 주행 연구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자율 주행처럼 인도해 주신다면 어떨까?” 나는 전파 기반 레이더 센서를 연구하며,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인지 센서를 인공지능으로 융합해 물리적인 세상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 기술을 다루고 있다. 자율 주행 시스템은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종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위험을 피하며 목적지로 나아간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붙잡고 싶어진다. 연구하며 깨닫게 된 것은, ‘말김’이 기술에서도 삶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점이다. 내 인생 역시 하나님께 말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직접 핸들을 쥐고 싶어 한다.

대학원은 내가 핸들을 더 세게 붙잡게 만드는 곳이다. 이곳의 언어는 효율과 성과다. 얼마나 빠르게 결과를 내는지, 몇 편의 논문을 썼는지, 어느 학회에 채택되었는지가 나의 가치를 설명하는 기준처럼 작동한다. 연차는 쌓여 가는데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나는 불안하고 조급해졌다. 그러자 나는 더 계산하기 시작했다. 무엇에 시간을 써야 성과가 날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효율이 좋을지 끊임없이 따져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실적을 보며 흔들렸고, 나보다 앞서가

는 이들을 부러워했다. 때로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보며 위안을 삼기도 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억울함도 자리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았다. 건강의 불편함까지 겹치자 그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게 어느 순간, 나는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실적’이라는 잣대로 재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하나님께 말기보다, 내 가능성과 결과를 붙잡고 있었다. 말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단단히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다루는 데이터는 숫자였지만, 그 숫자에 따라 요동치는 내 마음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성과가 잘 나오면 안도했고, 실패하면 더 조급해졌다. 하나님께 말긴 삶이라기보다, 성과에 의해 조종되는 삶에 가까웠다.

나의 대학원 생활은 종종 수영장에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물 위에서는 평온해 보이지만, 가라앉지 않기 위해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발장구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매일 열심히 하루를 채워갔지만, 요령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어 낙담하던 시기에,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속으로는 “멈추면 뒤쳐진다”라는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그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거의 없었지만, 돌이

커보면 그 시간 덕분에 조금씩 ‘물에 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물에 뜨기 위해서는 더 세게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일부러 발장구를 멈추어 보았을 때, 몸이 가라앉는 대신 물이 나를 떠받쳐 주는 경험을 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도 그와 닮아 있었다. 내가 더 애쓴다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힘을 조금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

박사과정 중인 지금의 나는, 이제 물 위에 떠 있을 힘은 조금 생긴 것 같다. 그러나 그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도 함께 늘어났다. 연차가 쌓이며 크책 과제를 맡고, 크고 작은 발표를 준비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핸들을 꼭 붙잡게 된다. 그럴 때마다 부담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고, 아직도 겨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이리저리 휩쓸리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단지 떠 있는 데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헤엄치는 법’을 배우려 애쓴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 연습이 쌓일 때, 언젠가는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헤엄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비로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묻게 되었다. 캠퍼스에서 내가 배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드러나지 않는 기도와 성과로 환산되지 않는 정직함, 경쟁 대신 선택하는 배려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던 시간조차 헛되지 않게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 경험 속에서 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고 있다. 붙잡을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내려놓을 것을 분별하는 일 역시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다. 모든 것을 쥐고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나는 다시 조용히 인생의 핸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더 분명히 인식하는 일에 가까운 것 같다. 하나님께 핸들을 맡긴다는 것은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맡김은 무책임이 아니라 신뢰이고, 포기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은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낸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말로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맡긴다는 이유로 준비를 멈추지 않기를 스스로 경계한다. 맡김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주님께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렇기에 학문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묻는다. 나는 아직 완벽하게 핸들을 내려놓지 못한다. 여전히 조금씩 해지고, 다시 붙잡고, 또다시 내려놓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히 인도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완벽한 자을 주행은 아직 멀었지만,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소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사과정에서 레이더 기반 센서융합 기술을 연구하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 기독교 학생 북클럽(대학원) 멤버이다. 현재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출석 중이다.

영화 속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영화 ‘타짜’ 시리즈와 ‘시민덕희’-

강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영화가 사랑하는 돈

상업영화는 돈을 벌기 위해 제작되기도 하지만, 또한 돈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기도 한다. 일단 돈을 개입시킬 경우 어떠한 이야기도 개연성을 갖기 쉽다. 그것이 사랑이든 살인이든 장르를 불문하고 돈은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곤 한다.

KBS와 한국영화평론가협회가 공동 선정한 ‘우리 시대의 영화’에 선정된 <타짜>(2006)는 단순한 오락 영화를 넘어, 돈에 대한 탐욕이 빚어내는 희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1편부터 3편까지, 관객들은 수십억 원의 판돈이 오가는 화려한 손기술에 열광하지만, 정작 영화가 끝난 뒤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는 드물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영화가 시리즈를 거듭하며 어떻게 ‘부정한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인의 일그러진 재물관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타짜> 시리즈로 본 탐욕의 궤적과 윤리의식

<타짜> 시리즈의 변천사는 돈을 대하는 영화적 윤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인의 돈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타짜1>(2006)은 부정한 돈에 대한 심판의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인공 고니(조승우)는 마지막 판에서만 거액의 돈을 불태워버리고 남은 돈은 광철용(김응



수)의 부하와 격투 끝에 기차 밖으로 흘러보내고 만다. 이는 “피 묻은 돈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결단이자, 하늘의 심판과도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영화 속에서 돈의 소멸은 불의한 욕망에 따른 죄과를 치르는 ‘희생 제사’나 인간성의 회복으로 읽힐 수 있다.

<타짜 2: 신의 손>(2014)에 와서 부정한 돈은 타협의 대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미나(신세경)의 오빠 광철(김인권)은 판돈 모두를 차지할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억의 돈을 길거리에 뿌리고 나머지 돈은 미나와 대길(탐) 커플이 갖도록 한다. 이것은 일종의 돈에 대한 타협의 자세라 할 수 있다.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면 나머지 돈의 소유에 대한 죄책감은 줄어들다는 심리를 엿볼 수 있다.

<타짜 3: 원 아이드 잭>(2019)의 결말에서 물영감(우현)의 부하와 주인공 도일출(박정민)이 판돈을 나눠 갖는 한편, 도일출은 함께 작전에 가담한 일행들에게 자신의 돈을 모두 나눠주고 공무원이 되어 일상의

로 돌아간다. 주인공과 일행들은 이제 돈을 태우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대신 그 돈을 챙겨 당당히 일상을 영위하거나 새로운 기회로 삼는다. 도일출이 판돈은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박에 대한 경계심은 엇보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 도일출의 아버지가 전설의 타짜 ‘짜귀’임이 드러나고 그가 아들에게 남겼다는 돈다발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장면은 언제든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면의 감춰진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의 돈에 대한 욕망이 극대화된 ‘도박 영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돈에 대한 생각은 이중적이다. 주변의 인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온갖 기술을 동원하여 돈을 따려는 주인공 타짜에게 관객들은 마음을 주지만, 영화 속 주인공은 정작 그 돈을 모두 가질 수는 없으니 말이다. 돈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작 부자를 존경하는 한국인이 적은 한국사회의 특성과도 맞닿은 것은 아닐까.

돈에 대한 가장 의미있는 태도를 보여준 영화

‘시민덕희’

박영주 감독의 <시민덕희>(2024)는 세탁소 공장에서 일하는 이준마 덕희(라미란)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넘어가 3천2백만 원을 잃어버린 이야기로 시작한다. 상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덕희’는 대출을 해준다며 은행 직원을 사칭한 손대리(공명)에게 속아 가진 돈 전부를 잃어버린다.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의 대응에 속이 상할 무렵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들려있는 손대리로부터 구출요청을 받고 콜센터의 위치를 경찰에 제보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과 함께 중국 칭다오로 향한다는 이야기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돈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의 일에 용기를 내어

연대하는 모습이다. 봉림(엄혜란)과 숙자(장윤주)는 동료인 덕희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휴가를 내고 칭다오에 있는 콜센터를 찾는데 함께 나선다. 특히 살인이 난무하는 위험 속에서도 조선족 출신인 봉림은 중국어 통역으로 결정적인 도움을 주며 우정을 꽃피운다. 세상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는 돈의 유혹을 넘어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다. 이 영화의 끝에는 덕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노력 끝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와 공항에서 마주하는 명장면이 있다. 너무 무서워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덕희는 할 말을 다 한다. 3,200만 원을 뜯겼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스는 한화로 1억 원도 넘는 10만 달러를 주고 가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지만, 덕희는 오히려 돈다발을 던지며 한마디 한다.

“사기당한 것이 내 탓이냐? 사기당한 내가 등신이냐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고 절실한 사람 등쳐먹는 너, 네가 잘못된 거야! 자수해, 경찰서 끌고 가버리기 전에.”

경찰이 하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추적하고 자신이 사기당한 돈의 4배가 넘는 돈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끝내 이 돈의 유혹을 물리치는 덕희의 행동은 우리 사회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돈이란 우상 앞에서 우리 모두가 굽신거리지 않고 덕희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FAITH & LIFE

글쓴이 김진구



고신대학교 성경학과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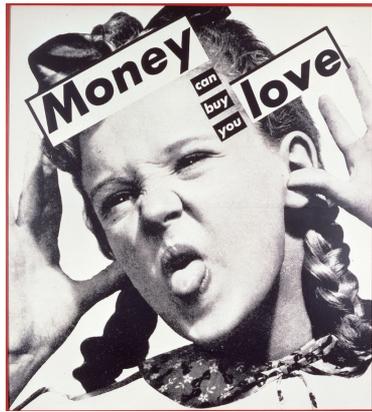
경제적 증식을 넘어 ‘창조적 경작’의 시대로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경제적인 ‘재투자’가 투입된 자본보다 더 큰 이윤을 거두려는 효율성의 논리에 기반한다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재투자는 위탁받은 은사와 재화를 문화적 토양에 뿌려 영원한 가치로 환원하는 행위와 궤를 같이한다. 이는 단순히 자본의 증식을 꾀하는 수치상의 계산을 넘어,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미적 토양을 다시 일구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시각적 실재로 피워내는 ‘창조적 경작’으로 이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라”(창 2:15)는 문화적 사명을 부여했다. 여기서 ‘경작’(Abad)이란 단순히 땅을 파헤치는 물리적 노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황무지를 동산으로 일구는 창조적 돌봄이자, 피조물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여 가꾸는 예술적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화의 정원사’로 부름 받은 것은 결코 관념적인 유희나 난해한 수사가 아니며, 만물을 경작하라는 창조주의 명령에 기꺼이 응답하는 실제적인 순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조 본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불순종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오늘날의 예술이 허무주의에 함몰되거나 자극적인 상업주의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현상은 이러한 근원적 이탈이 초래한 결과이다. 사람들은 광야의 ‘만나’를 원하기보다는 고급 식당의 최고급 스테이크 ‘필레미뇽’(fillet mignon)을 선호한다. 특히 소비사회에서 예술은 종종 자본의 시녀가 되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



바바라 크루거,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 252 × 223.5 cm, 1985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1985년 작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Money can buy you love)는 이러한 소비사회의 속성을 날카롭게 풍자했다. 입술을 내밀고 조롱하는 듯한 소녀의 표정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전통적 격언을 비웃으며, 인간의 감정마저 상품화된 현실을 폭로한다. 크루거의 냉소는 우리가 방심했던 ‘우상 숭배적 소비’를 직시하게 만드는 뜨끔한 경고문과 같다. 이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화적 토양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식되고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의 재투자는 바로 이 파괴된 아름다움을 복구하는 ‘미적 구속’(Redemption)의 형태를 띤다. 미술사학자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가 역설했듯이 예술은 세상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는 틀이

다. 크루저가 진실의 부재와 오염을 날카롭게 폭로했다면, 우리는 그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은총의 질서를 발굴해야 한다. 세속화된 문화의 토양 아래 묻혀버린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찾아내 다시 빛나게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 예술의 본질이다.

미술사에서 이러한 재투자의 영적 의미를 몸소 증명한 화가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생애 전반부는 세속적 성공을 위한 투자로 점철되었으나, 연이은 사별과 파산이라는 '인생의 겨울'을 맞으며 그는 비로소 자신의 예술적 씨앗을 어느 토양에 심어야 하는지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그의 후기작 <탕자의 귀향>을 고난과 용서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된 결정체로 손꼽는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을 높이는 투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 인간의 실존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용서'와 '회복'이라는 영원한 미적 가치를 추수했다.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1669.

이제 기독교 미학은 예술을 사적인 취향의 고립에서 벗어나 '공적 진리'의 영역으로 다시 불러세워야 한다. 예술적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 선물을 창조주를 대적하는 데 쓰지 말고 문화적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예술적 청지기직'은 거창한 구호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시각적 고백'을 이어가는 작가들이 있다. 우리가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전시장을 찾고, 선한 가치를 담은 작품을 후원할 때, 그 아름다운 여정 끝에서 복음은 낡은 종이 위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일군 문화적 토양 위에서 거두어들이는 '영화로운 시각적 증언'이 될 것이다. 예술품에 대한 애호와 참여는 단순한 자선을 넘어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문화적 모판'을 만드는 일이 된다.

자신에게 위탁된 역량을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예술적 영토를 넓히는 것, 파괴된 세상을 다시 경작하여 창조 본연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최상의 재투자다.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삽질이다. 이제 문화의 정원사로서 삽을 쥐고 세상이라는 정원을 향해 발걸음을 힘껏 내디더보자.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갈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위한 지혜로운 안내서

이승우 (다올자산운용 마케팅총괄 CMO)



〈돈 걱정 없는 인생〉 / 조성표, 백정선 / CUP / 2023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피하고 싶은 이중적인 주제이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갈망을 품지만, 정작 신앙 안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는 드물다. 이러한 고민에 응답하듯, 조성표 교수와 백정선 대표가 공저한 <돈 걱정 없는 인생>은 돈 문제를 단순히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 삶의 가치관과 영성을 조망해야 할 '본질적 문제'로 풀어낸다.

재정적 자유, 재테크가 아닌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 책의 뿌리는 깊다. 저자인 조성표 교수는 과거에 래리 버켓(Larry Burkett)의 <돈 걱정 없는 가정>(CUP, 1992)을 번역하며 성경 속에 담긴 재정적 지혜의 탁월함을 발견했다. 그는 회계학적 전문성에 성경적 원리를 결합하여, 돈 문제가 결코 소득의 많고 적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핵심은 명확하다.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며, 바른 태도를 가질 때만 진정한 재정적 자유가 찾아온다”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양면적 존재로 규정한다. 성경에 돈과 관련된 구절이 7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은, 재정이 우리 영성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설명한다. 이 책은 돈을 두려워하거나 좌악시키는 극단적 태도를 경계하며, 오히려 돈을 잘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천임을 강조한다.

재물의 이점과 한계를 분별하는 지혜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포인트는 '편안함'(Comfortable)과 '평안'(Peace)의 구분이다. 재물은 우리 삶에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코 영혼의 평안을 보장하지 못한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며, 이는 이 세상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치이다. 재물의 유익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주도권을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돌보게 하심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게 하심이다. 우

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할 때,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을 지키는 구체적인 재정 원칙

이 책은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지 않는다. 실전 자산관리 전문가인 백정선 대표의 통찰이 더해져, 가정이 경제적 최우선 순위를 '재정적 안정성'에 두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투자 원칙으로 제시된 아래 네 가지 가이드는 현대 사회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지침이다.

첫째, 여윌돈으로 투자하라 : 삶의 기반을 흔드는 투기는 멀리해야 한다.

둘째, 위험을 먼저 생각하라 : 수익률보다 원칙과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셋째, 분산하여 투자하라 : 지혜로운 분산은 성경적 겸손의 표현이다.

넷째, 현금과 구제를 위해 미리 떼어 놓으라 :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다.

행복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한 돈 사용설명서

결국 <돈 걱정 없는 인생>이 지향하는 종착지는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합당하게 관리하는 삶'이다. 이 책은 단순히 자산 증식의 기술을 가르치는 재테크 서적이 아니다. 오히려 돈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져서 내 삶의 진정한 목적에 집중하게 돕는 영적 안내서이다.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든 성도와 세대에게 이 책을 기꺼이 추천한다. 이 책을 덮을 즈음, 여러분은 통장의 액수와 상관없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

도가 풍성할 때 보다 더하니이다"(시 4:7)라고 고백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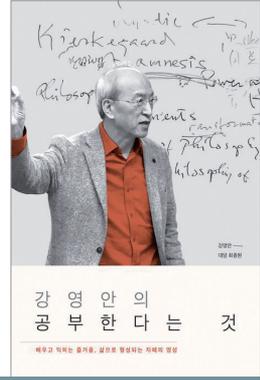


글쓴이 이승우

다올자산운용 마케팅총괄(CMO) 전무로 재직 중이다. 31년간 국내 자산운용 산업 전반을 현장에서 경험한 금융 전문가이고, 자산운용사에서 마케팅과 상품 및 비즈니스전략을 총괄해 온 최고 마케팅담당임원(CMO)이다. 증권사(전 현대투자신탁증권)에서 시작해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푸르덴셜자산운용과 국내 대형자산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을 거치며 기관영업, 상품 전략과 마케팅 그리고 조직 운영, 신규 비즈니스 개발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국민연금, 연기금투자풀, 보험사,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자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실무와 전략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모·사모 펀드, 국내·해외 주식과 채권, ETF, 대체투자, PE 등 다양한 자산군과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용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과 대표 상품 육성 전략을 설계해 왔다. 현재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 관리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하는 투자컨설팅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영안의 공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양성만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강영안의 공부한다는 것〉 / 강영안, 최종원 / 복있는사람 / 2026

〈강영안의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 온 ‘공부’라는 말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묻는 책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치는 통과의례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대학 진학률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공부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거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책은 과연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익숙한 공부의 모습이 진정한 의미의 공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질문한다.

이 책은 강영안 교수가 최종원 교수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은 대담이지만 내용은 한 지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 온 사유의 결산에 가깝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지식과 지식인의 문제, 둘째는 신학교육의 방향, 셋째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세계관 논의, 넷째는 저자 자신의 학문적 여정이다. 이 네 부분은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공부라는 하나의 중심축을 따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강 교수의 공부 여정은 신학대학에서 시작된다. 그는 네덜란드 개혁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우며 학문적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후 루뱅 대학교와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칸트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특정 사상에 머물지 않았다. 레비나스를 비롯한 현대 철학자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서구 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접점을 탐구하며 사유의 지평을 넓혀 갔다.

그의 공부를 지탱한 것은 폭넓은 독서였다.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문학과 사상서를 읽었고, 군 복무 중에도 철학과 신학 고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라틴어, 한문 등 여러 언어를 통해 동서양의 고전을 넘나들며 사유를 확장했다. 그러나 강 교수가 강조하는 핵심은 독서의 양이 아니라 태도다. 공부는 얼마나 많이 어느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강 교수에 따르면 공부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배움의 과정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는 존재이며, 아기가 말을 배우고 걸음을 익히는 과정부터 별

써 공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이 근원적 배움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공부는 특정 시기에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는 형성의 과정이다. 공부(工夫)란 말 그대로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강 교수는 공부의 과정을 읽기, 듣기, 말하기, 생각하기, 쓰기로 설명한다. 이 가운데 특히 '생각하기'와 '질문하기'를 강조한다. 자신이 배우는 내용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지식이 자신의 존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공부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산과술, 공자의 배움, 예수의 가르침은 모두 질문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보여준다. 질문은 단순한 의문 제기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지와 무능, 무감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공부를 통해 이 3가지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황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해 준다.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도덕적·영적 분별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서구 전통과 중국 전통,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모두 공부를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해 왔다. 강 교수는 이러한 전통을 연결하며 공부를 통합적으로 조망한다.

강 교수는 자신을 지식인이라기보다 학자로 규정한다. 이미 무엇을 배워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공부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서구가 이념적으로 추구한 지식인은 가능한 모든 지식,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다. 신학교육도 분과 교육을 넘어 신학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신학 교육은 교단 목사를 키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 역할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목회자를 키워야 한다. 또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 변증은 논증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실제 삶에 있

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덕목은 '환대'라고 할 수 있다.

강 교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본질과 방향을 예리하게 제시한다. 강 교수는 신앙을 일상에서 분리하지 않고 긴밀히 연결시키는 카이퍼의 태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카이퍼를 문화 변혁주의자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말하는 '신실한 현존(faithful presence)'이 카이퍼의 노선을 적절하게 규정한다고 여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대립을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요구는 그의 은사 판 뷔슨스의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이해, 곧 비기독교 철학 사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도 기독교 사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근원을 둔다는 이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의 대답집은 '빛진 자'라는 제목의 글로 끝을 맺는다. 강 교수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며, 따라서 자신은 빛진 자이고,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섬기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대답을 마무리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참여했고, 고려대에서 서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최근 은퇴할 때까지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철학)로 재직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이사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가 있고, 번역서 마이클 고힌(Michael Goheen)의 <창조, 타락, 구속>(IVP), 켈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캐나다 켈로나 한인장로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 리포트



나는 2008년 가족들과 함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양승훈 원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후 밴쿠버에서 14년, 그리고 켈로나에서 3년 7개월을 이민자와 목회자로 있게 되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기독교 세계관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만을 의지하며 노마드로서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영적 노마드로서 한 걸음씩 주님께 배워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2022년 처음 부임한 켈로나 한인장로교회는 설립 30년 역사 속에서 굴곡이 있었던 교회였다. 영적으로, 수적으로(약 30명)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예배는 겨우 드러졌고 재정도 마이너스였으며, 교회학교 교육, 양육, 전도는 요원해 보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를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막연한 것 같았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쳤다. 설교와 새벽기도회, 예배 후 말씀 나눔, 일대일 제자 양육 등의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회복하고자 했다. 예배 때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장로 또는 교회 설립 시 중요 멤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주 강조했다. 그리고 교회의 헌금 수입과 지출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한 재정 공개와 회계 처리를 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부임 후 줄곧 연속 강해설교를 했다. 구약(수, 삼상, 삼하, 시, 잠, 전, 아)과 신약(막, 눅, 고전 포함한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면서 성경 인물의 삶, 지역교회의 상황,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나누었다. 그러자 기존 교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경험하며 삶의 변화가 생겼고, 새신자들은 주의 은혜 속에 정착하게 되어서 올해 공동의회 때 성도 수가 62명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 외에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이뤄지길 소망하는 비전이 있다면 어린이와 청소년 방과 후 기독교 세계관 학교, 장년 기독교 세계관 학교, 기독교 세계관 독서 토론, 전교인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 등을 통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적 목회와 교육의 특징 4가지 중 2가지를 소개하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어린아이부터 황혼에 접어든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가 함께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른 세계관을 공유하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 주일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주일예배를 드리되 기독교 세계관 형성과 세대 간 신앙의 연결과 통합을 초점으로 하는 예배 인도를 해 왔다.
2. 신앙생활은 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끝이 다가오면 울수록 오히려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간다면 모든 것은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른 종말론을 배우고 가르치며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 돕게 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준호

캐나다 켈로나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캘로나 한인장로교회 교인 소감문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니 세속적 세계관은 헛된 가치가 되었다

나는 캘로나 한인장로교회의 교인이 되기 전, 캐나다 현지인 교회를 7년 동안 출석하며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 예배와 교제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몸과 마음이 편찮아서 식사도,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이민 사회에서의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났다. 결국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서 가셨다. 우리 부부는 당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있었는데 거의 돌아가실뻔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캘로나 한인장로교회는 이때 남편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오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혈압과 당뇨, 불면증, 극심한 불안장애가 있어서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외출도 할 수 없었고 교회도 다니기가 힘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늘 편하게 드리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왔던 무사안일 신앙의 껍데기를 깨뜨리시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초대해 주셨다. 그 무렵 김준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들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하루는 수요 예배에서 마가복음 5장의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악한 영들을 돼지 떼로 내쫓으신 말씀을 들었다. 특별히 “그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었다”(막 5:15)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이다(눅 1:37). 나는 아버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일주일 후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살아갈 희망도 없던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드디어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다. 아버지는 말씀을 들으시며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며, 감동의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 당뇨, 고혈압, 불안증, 입맛, 불면증도 모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수면제도 끊게 되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로만 듣고 알던 세계관에서 벗어나 옴과 같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체험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이 영혼과 삶 속에 들어오니 세속적 세계관은 헛된 가치가 되었다.

이제 아버지는 76세가 되셨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의 언약에 헌신하였던 갈렙과 같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욱 무장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간구 드린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윤정

캐나다 캘로나 한인 장로교회 집사이다.



로타 크라이식의 기독교 세계관(2) : ‘위대한 유산’

최용준 (한동대학교 시 융합학부 교수)

오늘날까지 로타 크라이식(Lothar Ernst Paul Kreyssig, 1898-1986)은 나치의 T4 프로그램에 따라 자행된 조직적 살인을 저지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플뢰하,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벨, 마그데부르크, 칼스루어(Karlsruhe) 및 베르기쉬 글랏바흐에는 각각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 플뢰하에는 그의 이름을 딴 학교도 있으며 레닌(Lehning)에는 그의 이름을 딴 요양원도 있다. 나아가 동서독 통일의 도화선이 된 1989년 평화혁명에 참여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한 많은 사람도 사실 그의 화해 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바이스는 지적한다.

그의 100세 생일을 기념하여 1998년, 브란덴부르크 안 데어 하벨(Brandenburg an der Havel)에 있는 상급 지방 법원(Oberlandesgericht)에는 기념 명판이 공개되었다. 지금 브란덴부르크의 일반 변호사회(Generalstaatsanwaltschaft)가 있는 이전 하급 법원 대지에는 2개의 기념비가 있고 그 내부에는 크라이식을 ‘화해의 선지자’(Prophet der Versöhnung)라고 부르며 그의 전기를 출판한 콘라드 바이스(Konrad Weiß)의 비문이 새겨진 명판도 있다. 브란덴부르크 법률가협회는 2008년 5월 50일에 그가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단을 창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명판을 기증했다. 2006년 10월 22일 연방 법무부는 그의 사망 20주년을 기념하여 브리짓 지프리스(Britte Zypries) 법무부 장관이 후원하는 추모식을 개최했다. 2008년 7월 5일에는, 1937년부터 1972년까지 그가 거주했던 호헨페르체사르(Hohenferchesar)에서 기념비가 공개되었다.

로타 및 요한나 크라이식(Lothar & Johanna Kreyssig)은 나치에 의해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고 홀로코스트 기간에 아무런 금전적, 종교적 목적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구해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1953년 설립한 이스라엘의 공식 추모 기념관인 야드 바셈(Yad Vashem)에 의해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2009년에 한스-요아힘 뉘링(Hans-Joachim Döring)은 마그데부르크에 중부 독일 개신교회(EKM: Evangelischen Kirche in Mitteldeutschland)의 로타 크라이식 에큐메니컬 센터(LKÖZ: Lothar Kreyssig Ökumenezentrum)를 설립했다(Döring, 2011). 이 단체는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령, 지역 교회, 교구와 총회를 위한 서비스 및 자문을 제공하며 현대 사회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부 독일 개신교회의 지역 교회, 기관 및 사역과 함께, 정치 및 사회 영역과 협력하고 에큐메니컬 파트너와도 대화를 촉진한다. 이 센터의 핵심 주제는 평화, 정의, 이주, 에큐메니컬 동반관계, 환경 및 발전이다(www.oekumene.zentrum-ekm.de). 나아가 이곳에서는 로타 크라이식 평화상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년마다 수여하고 있다. 그가 남긴 후대에 남긴 기독교 세계관적 유산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Lothar_Kreyszig

첫째, 그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장애인 질병 여부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T4 프로젝트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한, 진정한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 판사였다.

둘째로 그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침략했던 국가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화해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실천한 본보기가 된다. 그는 비록 나치를 반대하는 고백 교회 소속이었지만 독일 개신교회 총회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시 독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며, 그것을 호소함으로 많은 전후 독일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어내었고, 실제로 이들은 화해의 상징이 되어 많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평화의 봉사를 실천했다.

그의 호소가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이상으로만 들렸으나 결국 이러한 화해 운동은 지속해서 전개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도 협력하였으며, 지금도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헌신하여 봉사하고 있고 그 결과 독일은 주변국들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는 동시에 마침내 재통일되는 축복도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로타 크라이식의 신앙은 분명히 행함이 있는, 살아 있는 믿음이었으며 따라서 본회퍼(D. Bonhoeffer)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화해의 사도’로 매우 중요한 기독교 사상가요 실천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한반도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한국 동란 후 70여 년간 분단되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남북한에도 이처럼 화해를 위한 평화봉사 운동이 일어나고 장애인들이 더욱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화해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앞장서고 북한에서도 호응한다면,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되며 마침내 한반도도 통일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은 크라이식의 화해 사상을 더 깊이 연구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용준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B.A),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M.Div), 네덜란드 자유대학교(Drs.), 남아공 포체스투름대학교(Ph.D, 기독교철학)에서 공부했다. 독일 쾰른한빛교회와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학문>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AI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

: 제10회 기독청년학생연합 북콘서트

지난 2026년 2월 6일(금) 저녁부터 7일(토) 낮까지 '제10회 기독청년학생 북 콘서트'가 'AI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 11동 107호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 기독학생 북클럽과 카이스트 북클럽이 공동주최했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삼광교회, 그리고 수많은 후원의 손길이 함께 했다. 현장 등록자 74명과 온라인(Zoom) 참여자 15명이었다. AI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는 지난 2023년 2월에 AI와 기독교의 미래를 주제로 다룬 존 레녹스의 <2084>에 대한 정리와 토론, 그리고 이유한 박사님(카카오 신약개발팀장), 이호수 박사님(전 SK 텔레콤 사장)을 초청 강사로 초대하여 이미 가진 바 있었으나, 그때 이후 AI의 놀라운 발전과 변화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와 나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최된 행사였다.

이번 북 콘서트에서 나는 책은 <포스트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적 대응>(임준섭)와 <기독교와 AI>(이경건)였다. 감사한 점은 이번 북 콘서트에도 응원하는 수많은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것이다. 특별히 첫째 날 저녁 식사 전에는 박동열 교수(서울대 불어교육과)와 이영조 교수(서울대 통계학과), 둘째 날 점심 식사 전에는 이호수 박사(전 SK 텔레콤 사장), 참가자 다과 전에는 서울대 북클럽 선배들과 카이스트 북클럽, 장거리 참여자 남자 숙소는 서울대기독교교회, 장거리 여자 숙소는 삼광교회가 마련해 준 후원으로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첫째 날(2월 6일 금요일, 저녁 7:30~10:40)에는 김다빈 박사(서울대 항공우주공학부 박사후 연구원)의 사회로 <포스트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적 대응>(3, 4, 5장)과 <기독교와 AI>를 가지고 6명의 학생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전략과 기독교적 대응>의 3장 '경계를 해체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은 김지민(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석사과정), 4장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관'은 정명현(서울대 외교학과 석사과정), 5장 전반부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기독교적 인간관'은 이지성(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5장 후반부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기독교적 인간관'은 이동욱(카이스트 로봇학제공학 박사과정)이 발제를 했고, <기독교와 AI>의 전반부는 남명현(감신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기독교와 AI>의 후반부는 장요한(장신대 신교학 박사과정)이 발제를 맡았다.



둘째 날(2월 7일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40)에는 임상희 박사(기초과학연구원)의 사회로, 이형주 교수(연세대 신학과/신학과 과학 전공), 이경건 교수(싱가포르 난양공대 과학교육과 교수), 이호수 박사(전 SK 텔레콤 사장, 노스웨스턴대 인공지능 Ph.D)의 특강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으로 이어진 열기가 가득한 시간을 가졌다.

AI 시대가 가져온 인간의 정체성 담론에 대한 재점검을 목적으로 한 제10회 기독교청년학생 복콘서트는 참여자 모두가 AI와 인간의 관계를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히 정리하고 함께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초청 강사 모두 신앙적으로는 복음주의 정체성을 지닌 분들로서, 이형주 교수는 물리학(Ph.D)과 신학(Ph.D)을 전공한 신학자이고, 이경건 교수는 컴퓨터공학과 과학교육학(Ph.D)을 전공한 교육학자이며, 이호수 박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나라 1세대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산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여서, 강연 내용이 다양하면서도 서로 보완적이었기에 더 유익했다.

토론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적인 면에서 흥미로운 경향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자연과학·공학을 전공한 발언자들이 공교롭게도 대체로 AI의 도전에 다소 여유로운 입장을 취하는 반면, 인문학·신학을 전공한 발언자들은 상대적으로 AI가 가져다준 도전을 훨씬 심각하게 경계하는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생성형 AI의 멀티모달(Multimodal) 능력이 가져온 시, 소설, 디자인, 음악 등 예술 영역에서의 도전에 대한 예술전공 대학원들의 우려와 경계도 인상적이었다. 창작활동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만의 역량이라는 기존의 담론에 대한 주목할만한 재점검의 시간이었다.

이번 복콘서트는 모든 참석자에게 AI 시대에서의 인간의 정체성 담론에 관한 재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도 자신의 전공에 따라 AI에 대한 인식에서 변별적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참석자 다수는 이른바 복음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담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한 '경계의 해체'라는 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즉, '경계'는 하나님에 선한 창조의 질서에 포함되기에 인간중심주의의 '모던 휴머니즘'에서 왜곡시킨 폭력이나 억압의 기반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다수 참석자가 포스트휴머니즘을 대체로 진화론과 '경계의 해체'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해서 창조의 질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FAITH & LIFE**

글 _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 서울대 기독교학생 복클럽 지도목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실 이전

새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39길 8-1, 3층 (07290)

2026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 개최 종료

일시 : 2026년 2월 9일(월) 오후 7시

장소 :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2026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종료

일시 : 2025년 2월 9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 남서울교회 비전센터 3층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31권 1호 (3월 31일 발간 예정)

5편의 논문이 이월되었고, 현재 11편의 투고 논문이 심사 진행 중에 있다.

제10회 기독교청년학생 연합 복콘서트 개최 종료

주제 : "AI 시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다"

일시 : 2026년 2월 6일(금)~2월 7일(토)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 10동 107호

행사 자료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에 발제, 특강, 질의응답 동영상 열람 가능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충신대 명예교수)

이 사 김태환(명지대 교수), 박동열(서울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생병원 대표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명예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은퇴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신현(고신대 교수), 임춘택(제주대 교수)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주) 에이블디벨로프먼트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휴비츠 프로),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윤태형(동서대 교수), 장슬기(별무리학교 교사),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숭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부총무 박지희(건국대 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순화철(한동대 교수, 기술철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응철(숭실대 교수, 서양철학), 순화철(한동대 교수, 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충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원장)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 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VIEW 기독교 세계관 Certificate: 1년 3과목 수강 (21세기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적 묵상과 설교, 일터와 기독교 세계관; 개별 수강 가능). 한국에서 6월과 11월 집중 대면 수업과 줌으로 이루어진 과정 (view.edu/cert 참고)
 - VIEWtiful 인문학 과정: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인문학의 기초 역량을 중 강의와 녹화본 강의로 제공하는 과정(VIEWtiful.ca 참고)
-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종강) : <은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 <크리스천 씽킹>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종강) : 'C.S. 루이스 읽기'로 진행, <순전한 기독교>, <인간폐지>, <고통의 문제>, <네 가지 사랑>을 공부했다.
 - 대학 강의(종강) : 아신대 :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평택대 :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 바라보기>, <기독교 사상이 탐색>
 - 평택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세계관 MTS 과정 4기 신입생 모집 : CTC 지도자 과정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만든 신학석사 프로그램.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현장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정립, 분별하며, 현장에서 적용하기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대한다.
 - 2026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 과정 모집(3월 개강) : 기독교세계관 교육 원리와 실재를 위한 '6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 어린이세계관교육 위한 '5기 기독교세계관 강사과정'을 모집한다.
 - 다음세대 기독교세계관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3월 개강) : 청소년 하이세 아카데미 : 기독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교사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 : <로빈슨 크루소>
 - 대학 강의 : 평택대 기독교세계관 MTS(신학석사) <기독교세계관 교육과 코칭>, 학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사상이" & 아신대 <기독교세계관>, <철학으로 세상 바라보기>(현대 철학)
- ※ 문의 & 참여 신청: CTC 사무국(010-3673-8439),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
- ※ 2026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신간 소식



<살아있는 뇌, 변화하는 뇌> 신경재활 전문의 박시운 지음 | 256쪽 | CUP

“뇌는 고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뇌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뇌를 변화시키는 존재다

이 책은 뇌를 '결정론적 기관'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뇌과학 담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뇌가 어떻게 변화하고 회복되며 성장하는가를 임상 현장의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풀어낸 교양 뇌과학서다.

저자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뇌 손상 이후에도 인간이 어떻게 다시 배우고, 적응하고, 삶의 방향을 재구성하는지를 가까이에서 관찰해 왔다. 이 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과학적 개념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독자의 언어로 설명한다.

특히 본서는 뇌과학을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자기계발의 도구로 소비하지 않고, 인간의 변화 가능성, 회복, 책임,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고(2025년 12월, 2026년 1월)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12월	2026년 1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5년 12월	2026년 1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1,120,000	720,000	인건비	일반급여	4,855,000	4,855,000
	임원회비	830,000	64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3,545,000	3,607,500		소계	5,255,000	5,255,000
	기관후원금	3,900,000	3,2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82,830	516,001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244,709	127,085
	CTC후원금	50,000	60,000		우편료	7,400	3,640
	VIEW후원금	980,000	910,000		비품	0	0
	기타후원금	0	0		식비	248,300	357,800
	월보구독료	415,000	315,000		수선비	0	0
	학술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09,340	509,34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퇴직연금	439,230	503,122
	기타	0	25		예수금 지출액	453,400	477,290
					회의비	0	200,00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20,100	216,680	
소계	10,840,000	9,502,525	소계	3,465,309	3,870,958		
기타수입	일반이자	5,585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911,365	911,42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971,090	971,14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640,880
	기금차입	0	0		발송비	16,000	632,28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0
	예수금 수입액	477,290	486,980		소계	16,000	3,273,160
				기타	세금	23,890	27,000
			잡비		300	300	
소계	482,875	486,980	소계		24,190	27,30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60,000	700,00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60,000	700,0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40,000	14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0	420,000		학술지인쇄비	0	2,192,000
	학술지게재료	3,800,000	0		학술지발송비	0	130,130
	저작권료	1,814,659	682,920		학술지심사료	0	1,300,00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기타	0	0
	소계	5,754,659	1,242,920		소계	0	3,622,13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920,810	926,825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926,825	946,165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0	320,000
	소계	920,810	926,825		소계	926,825	1,266,165
당월 수입액		17,998,344	12,159,250	당월 지출액		10,718,414	18,985,858
전월 이월액		13,187,367	20,467,297	차월 이월액 (잔액)		20,467,297	13,640,689

* CMS,이니시스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5년 12월)

5천 강대용, 공승권, 박도명, 구성태, 권지연, 김경호,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영주, 김정영, 김정은,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정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숙, 고용재, 고철웅,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용,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욱, 김새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진정, 김아람, 김아름,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 김유리, 김은덕, 김재민, 김재정, 김정은,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화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우,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우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혜우, 윤 철,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태형, 윤태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의,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허성만, 한신영,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인,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한,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성태, 2만 강석분,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배지연, 백은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근, 이기서, 이연우, 이정길, 정훈, 조주영, 채기현, 최현식, 최현중, 허정도, 2만5천 한운식, 3만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선정,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이은실, 잡지협회, 전상홍, 정민, 최동진, 황정진, 황혜원, 4만 강용란, 호석운,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석중준, 송승철, 임재광, 최용준, 10만 김지연, 김태황,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박문식, 최필영, 최태연, 15만 최현일, 50만 박동열

계 7,910,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6만 고려신학대학원도서관, 고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수비전교회, 예수향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횡동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본당우리교회,

계 3,070,000원

전체 10,980,000원

회원후원

(2026년 1월)

5천 강대용, 공승권, 박도명, 구성태, 권지연, 김경호,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새별,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영주, 김정영, 김정은,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홍영,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범경철, 생명의강,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유충열, 이경미, 이기훈,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한배선, 허선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웅, 기민석, 김원평, 김경식, 김경진, 김광태, 김국화, 김규욱,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용,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욱, 김새별, 김성규,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진정, 김아람, 김아름,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 김유리, 김은덕, 김재민, 김재정, 김정은, 김종원, 김종일, 김종철,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김희년, 김희영, 남상욱, 남선우, 남현우, 라영환, 류지호, 류현우,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명욱, 박민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두산,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선정,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은희, 송철호, 신동일, 신성만, 신현정, 신호기, 심은희, 심정연, 안석, 안승범, 양성진, 양성철, 양승규, 양행모, 양혜영,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우희, 유건호,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혜우, 윤 철,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용순, 윤태형, 윤태락,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의,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택, 이윤희, 이정일, 이종철, 이종선, 이지연, 이진희, 이창우,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용수, 정유진, 정희원,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권,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주호영,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한빈, 최혜경, 추진연, 표민호, 허성만, 한동빈, 한신영, 한화진, 허연, 허현, 홍구화, 홍종인, 황기철, 황상준, 황성연, 황세한, 황혜숙,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성태, 2만 강석분, 강용란,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태진, 김혜성, 박기모, 박해일, 박홍식,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근, 이기서, 이연우, 정훈, 채기현, 최현식, 최현중, 허정도, 2만5천 한운식, 3만 강진규, 고세일, 권경호, 김경민,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신혜경, 이은실, 전상홍, 정민, 최동진, 최용성, 홍승희, 황정진, 황혜원, 4만 문석운, 박수진, 우병훈, 5만 강다열, 김태훈,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윤현준,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6만 김민경, 석중준, 송승철, 10만 박문식, 박영주, 백중호, 신국원, 신영순, 윤완철, 이성현, 장수영, 12만 김민철, 김중호, 박영진, 최태연, 15만 최현일,

계 6,282,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다운공동체교회, 일원교회, 6만 장로회신학대학교도서관, 10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로고스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인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아름빛교회, 예비전교회, 예수향남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태화교회, 횡동교회, 15만 삼일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본당우리교회,

계 3,360,000원

전체 9,642,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홍콩대 심리학과 교수,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물리치료학, 연세대 Ph.D, 실행위원장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휴비츠 프로,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이사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종교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승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지원

김혜정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홍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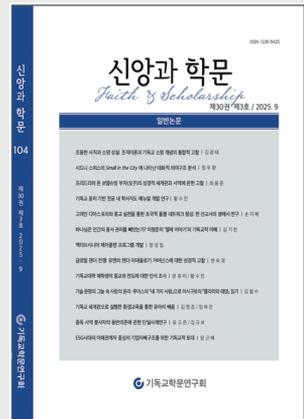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호(31권 2호)
투고 마감일은 4월 30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5년 9월 22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 투고 규정 8.(3)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각주 예시 확인
 - * 투고 규정 10.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 40만원), 전일제 대학원생 15만원으로 게재료 인하, 심사료 7만원 신설
 - * 연구윤리규정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추가
 - * 논문 심사 세칙 제2조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